

광주 초등생 10명 중 8명 사교육 받는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 2020 실태 조사

광주지역 초등학생 8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실상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초등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중학생과 고등학생 60~70%가량도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공교육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교육청 소속 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해 광주지역 초등생 4400여명, 중학생 5700여명, 고등학생 34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실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생의 81.1%가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중학생은 75.5%, 고등학생은 63.6%가 각각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전체 학생 중 74.4%로 전국 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75.0%)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저학년일수록 사교육을 받는 비중이 높았고, 이같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교육 신뢰 훼손과 가계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화와 여가 등과 관련해 광주 초·중·고생의 한 달 독서량은 초등생이 0권(8.7%), 1~5권(42.1%), 6~10권(17.3%), 11~15권(7.8%), 16권 이상(24.0%) 등으로 답했다. 중학생은 0권(18.2%), 1~5권(64.6%), 6~10권(8.9%), 11~15권(2.8%), 16권 이상(5.5%) 등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0권(23.5%), 1~5권(68.9%), 6~10권(4.0%), 11~15권(1.2%), 16권 이상(2.5%) 등으로 응답했다.

또 초·중·고생 절반가량이 한 달에 1~5권 책을 읽는 가운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한 달에 한 권도 책을 안 읽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들 중 46.9%가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등학생 절반 이상(56.8%)은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결정했다고 답한 학생 중 27.3%는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을

중 75%·고 63% ...공교육 근간 흔들리고 가계 경제 부담 가중
초·중·고생 절반, 한 달 1~5권 독서...고 23% "한 권도 안 읽어"

선택했다. 다음으로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이 26%로 많았고,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이 9.9%였다. 이는 지난 2018년 실태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진로 선택 때 고려하는 사안으로는 자신의 능력(35.5%), 자신의 적성(24.1%), 직업의 경제적 수입(15.7%), 직업의 안정성(11.7%)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종합실태조사를 진행한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이기연 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 코로나19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가정에서 혼자 학습하거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며 "교육당국은 사교육을 받지 않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준별 학습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비대면 유치원 졸업식 광주시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지난 19일 애플B유치원(원장 최봉훈) 졸업식이 열렸다. 이날 졸업식은 학부모 참석없이 비대면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학폭 갈등조정지원단 운영 전남교육청, 지역민 54명 연수

전남교육청이 학교폭력 갈등조정단을 운영한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최근 22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지역민 54명을 대상으로 최근 학교폭력 갈등조정지원단 온라인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지역의 다양한 인력이 갈등 조정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조정자로서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는 관계회복과 갈등조정, 학교폭력 법률과 지침, 학교현장의 갈등조정, 학교폭력 사안 보호자 상담, 협력관계 구축과 공동체의 회복 등 이론 교육과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도 교육청은 이번 온라인 연수 후 '관계회복과 갈등조정 대화' 실습교육을 3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연수과정 이수자는 지역에서 갈등조정과 관계회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지원청은 연수과정 이수자를 법률에 근거한 분쟁조정 담당자로 위촉할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저소득층 무료 상해보험

동구, 광주 자치구 첫 지원
사망유족위로금 등 보장

광주시 동구가 취약계층 1000명에게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로 무료 상해보험을 지원한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경제적인 사정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공익형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보험'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8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우체국,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약식을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동구내 만 15~65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00명이며, 1인 가구가 우선 지원대상이다. 보험기간은 1년 만기 상품이다.

이 보험에 가입된 대상자들은 사망유족위로금, 재해입원부담금, 재해수술부담금 등을 보장받게 된다.

이 사업은 동구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체적인 사업을 수행하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광주우체국은 보험가입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전체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1만원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우체국에서 부담한다. 또한 만기 시 가입자에게 1만원을 환급해 준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상해 및 재해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따뜻한 행복 동구를 만들어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경양초·예술고 이전 준비 '착착'

경양초, 예술고 부지에 2023년 3월 개교 예정
예술고, 옛 전남교육청 부지로 2학기 이전

광주 북구 경양초등학교와 예술고등학교 이전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경양초 이전 재배치와 관련, 설계 용역 계약 과정을 마치는 등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들어갔다.

경양초는 내부 협의를 거쳐 현 광주예술고 부지로의 이전을 결정했다. 개학시기는 2023년 3월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예술고 부지에 191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 건물을 신축한다. 학급 규모는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병설유치원 2

학급이다.

기존 경양초 학생들은 주변 운암초, 동림초, 대자초 등지로 배치됐다.

광주예술고는 북구 매곡동 옛 전남도교육청사 부지로 이전한다.

현재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예술고 이전은 올해 9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며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신입생과 재학생이 광주대에서 시작했나 봄'

오늘부터 온라인 페스티벌 '스타트-온' ...장기자랑·토크콘서트 등

광주대학교가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고 대학 생활 적응 및 친밀감 형성을 위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는 '2021학년도 온라인 페스티벌 START-ON'을 개최한다.

'신입생과 재학생이 광주대에서 시작했나 봄'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용 온라인 페이지(http://gjustarton.com)에서 참여 가능하며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진행된다.

우선 재학생들은 ▲응답하라 2021(장기자랑) ▲유희채언더GU(학교생활 사진 공모전) ▲START e-sports(온라인 게임) 등에 참여해 끼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비대면 수업으

로 학교생활을 못하는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대학 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과 고민거리 등을 해결해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사연 및 고민상담, 시간표 대화)과 코로나19 예방-대학 생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가로세로 낱말 풀이' 등도 펼쳐진다.

'2021학년도 온라인 페스티벌 START-ON'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이번 페스티벌 참여자와 작품 등을 바탕으로 라이브 토크콘서트를 통해 학생들과 실시간 소통할 예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MG대광새마을금고

창립40주년

"나에게 힘이 되는 대광새마을금고가 함께합니다."

아파트 분양자금 대출한도 최고 70%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최고 80%	햇 살 론 최고 2,000만원 <small>(근로자 최고 1,500만원)</small>
---------------------------------------	---------------------------------------	--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 각종 공제(암 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